

##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권리당원 투표 돌입

- (5.3.~4.) 권리당원 투표, (5.8.) 중앙위원회 투표 예정 -

○ 민주당은 오늘부터 특별당규 제정안 권리당원 투표에 돌입했음

- 총선공천제도TF는 그동안 당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특별당규 제정시안을 마련했음
- 심의 과정에서는 현행 시스템공천 기조를 유지하고, 일부 변화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
- 특별당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 간담회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충분한 컨센서스를 이루었음
- 권리당원 투표는 오늘(3일)부터 내일(4일)까지 이틀 간 이루어짐
- 이후 특별당규 제정안은 당헌상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권리당원 투표와 5월 8일에 예정된 중앙위원회 투표를 합산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임

○ 특별당규 제정안은 제22대 총선 승리의 첫 걸음이 될 것임

-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폭압과 폭주를 멈추고, 민생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임
- 남은 기간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, 그것을 양분 삼아 총선 승리를 일궈내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임
- 특별당규 제정을 통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률 마련은 그 첫 번째 절차임

○ 이번 특별당규 제정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

○ 첫째, 역대 선거에서 이어 온 시스템 공천 기초를 유지했음

- 제22대 총선 특별당규는 지난 총선 특별당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, 현행 당헌당규를 준용했음
-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경선방법은 국민 50%와 당원 50%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경선 원칙을 견지했고,
- 권리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 1일로 정했음
- 이에 따라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,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됨
- 공천심사 역시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하여 △정체성 △기여도 △의정활동능력 △도덕성 △당선가능성을 종합 심사하도록 했음
- 권리당원 명부는 역대 선거에서 선거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에게 배포한 적이 없음
- 다만, 선관위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특별당규 제29조에 명시함

○ 둘째,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음

-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‘학교 폭력’ 범죄를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하였음
-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△파렴치 및 민생범죄 △성희롱 · 2차가해 △직장 내 괴롭힘 · 갑질 △학교폭력 ‘4대 범죄’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% 감산을 적용받도록 했음
- 경선불복, 탈당, 징계경력자는 경선 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음
- 이미 민주당은 각급 선거에서 국민의힘보다 더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왔음
-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제1원칙으로 하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할 것임

○ 셋째,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후보자의 역량을 제고했음

- 제21대 총선 이후 강화된 당내 교육규정을 준용하여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여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받아야 함 (※제21대 총선 기준: 성평등교육 1시간 이상 이수)
- 국가유공자를 공천심사 가산 대상에 추가하였음
- 검증 단계에서는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여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음
- 경선과정에서는 후보자 합동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 개최를 원칙으로 규정함

○ 넷째,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했음

- 청년후보자가 있을 경우, 청년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음
-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의 경우,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%p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음
- 이 경우 2위 후보자 역시 청년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적합도조사에서 20%p 이상 격차가 나야 단수선정이 가능함

○ 다섯째, 규정의 미비로 국민의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음

- 만약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경우, 알뜰폰 사용자를 안심번호 선거인단에 추가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음

○ 공천률 조기 확정을 통한 공정한 공천을 실현하겠음

- 타 당의 경우에 비추어 봐도 공천률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공천잡음 또는 사천논란에 휘말려왔음
- 그 결과는 국민들의 실망과 외면이었음
- 우리당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1년 전에 공천률이 확정될 예정임
- 시스템공천을 통해 특정인의 입김에 따라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원천 봉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

○ 특별당규 제정안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

-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,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를 통해 반드시 총선 승리를 이뤄내겠음

2023년 5월 3일(수)



**2024 총선공천제도TF**